

단독주택 거주 고령자의 주거공간 만족도 및 일상생활행위 수행정도

김 현 진[†] · 임 희 경 · 안 옥 희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Housing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Daily Life Activities of Elderly in the Detached House

Hyun-Jin Kim[†] · Hi-Kyung Lim · Ok-Hee An

Dept. of Human Ecology, Yeungnam University · Division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ersity · Dept. of Human Ecology,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we made a survey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daily life activities on independent elderly households in the detached ho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basic data for elderly housing design to be considered elder's characteristics.

A survey carried out for 110 respondents with face to face interview visiting each house between May and June, 1999 with modified and drawn questionnaire from analysis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data.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using,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 use of housing space, performance degree of the elder's daily activities.

To analyze the data of 106 cases,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s, one-way ANOVA, reliability analysis and Scheffé test were used by running SPSSWIN program.

The results on the housing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activities in daily life of elderly in the detached house were as follows: In this survey, the elderly had high value in satisfaction with the size of current house as the mean 3.14 points, but they were dissatisfied with the using of house as the mean 2.82 points. The satisfaction with living room space was the highest but the satisfaction with toilet space was lower than others. Among the activities of daily life in housing space, housing related activity was the hardest to perform as the mean of 3.15 points. In consequence, consideration on and interest in the planning of residential spaces are needed so that the elderly can perform the action of housing lif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Key Words : elderly people, housing satisfaction, activities in daily life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Human Ecology, Yeungnam University,
214-1, Dae-dong, Kyungsan City, Kyungsang Buk-do, 712-749, South Korea
Tel : 053-810-2864, Fax : 053-816-0420, H/P : 016-520-2874
E-mail : jnikim74@yumail.ac.kr

I. 서론

우리 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고령자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통계청(2002)에 따르면 우리 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00년 전체 인구의 7.4%에 달함으로써 현재 우리 나라는 '고령화 사회'이며, 2019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4%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고령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자식들과의 동거를 지향하던 때와는 달리 일정한 소득만 보장되면 단독가구를 형성하여 고령자끼리 생활하는 고령자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령자 단독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 및 1세대 가구의 비율이 1990년에는 25.8%, 1995년 36.9%였던 것이 2000년에는 44.9%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2). 이를 보면 고령자 단독가구의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되어 노년기 가구의 대표적인 형태로 정착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고령자에게 있어서 주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고령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약화와 더불어 사회적인 활동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감소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인지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그들의 사회활동 범위는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경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주택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거주 및 활동의 주된 장소로서 주거환경, 특히 실내환경은 고령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고령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재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 및 일상생활행위의 수행정도를 살펴봄으로써 고령자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자를 위한 주택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주택은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차적 장소로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수조건이며, 이것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라 삶의 질을 좌우한다. 주택은 일반가구에 있어서 보다 고령자가구에 있어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노화에 따라 생활의 범위가 주택이라는 좁은 범위로 축소되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의 내부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도 약화되므로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환경적 조건을 갖춘 주택이 필요하게 된다. 주택이 안정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합하면 고령자의 삶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박재간 외, 1995).

우리 나라에서는 '고령자 주택'이나 '고령자 주거환경'이란 용어가 그리 익숙하지 않다. 그것은 최근까지 고령자는 가족으로부터 부양되어 왔으며, 우리 나라의 고령자에 대한 가치관과 이것이 통용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특별히 '고령자 주택' 혹은 '고령자 주거환경'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현실은 고령자가 완전히 가족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고 부모 부양의식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 경향과 함께 피부양자였던 고령자 자신들도 보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생활환경의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그의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 생활하는데 이 생활을 얼마나 원활하고 용이하게 하는가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고령자는 대부분 신체적 약화로 인하여 운동성이 제한된다는 신체적 특성과 직업으로부터의 은퇴,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한 활동영역의 제한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박재간 외, 1995).

따라서 고령자는 정신적으로 고립화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결여되므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환경의 계획에는 신체적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의 계획은 물론 고독, 소외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

소해 줄 수 있는 공간구성이 필요하다(강원필, 1989). 또한 고령자에게 있어서 주거환경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으로서 거주자의 생활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며 감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전명숙, 1994).

즉 고령자에게 있어서 주거환경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령자의 주거환경의 계획에서는 정신적·신체적 모든 기능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시에서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독립가구로서 주체적으로 주생활을 영위하는 고령자 단독세대, 부부세대, 미혼자녀 및 손자녀 동거세대이다. 이렇게 조사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다양한 평면구성을 보일 것

로 생각되는 단독주택에서는 주거공간 만족도가 상이할 것이며, 공간 특성에 따라 일상생활행위의 수행정도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독주택 거주 고령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로 한정된 이유는 공간의 사용면이나 증개축 등의 개조면에 있어서 자가와 타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자율적인 개조가 가능한 자가소유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면담용 설문지 내용의 구성과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1999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본조사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수정·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9년 5월~6월 사이에 연구자가 2명의 면접원과 함께 피조사자를 호별 방문하여 면접 조사법으로 총 1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용 설문지는 선행연구(장은정, 1990; 상형중, 1992; 김경일, 1998)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그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일반사항(8문항), 주거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106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20(18.9)	동거형태	노인부부	53(50.0)
	여	86(81.1)		노인(부부)+ 미혼자녀·손자녀	30(28.3)
연령	65~69세	59(55.7)		독신노인	21(19.8)
	70~74세	30(28.3)		노인(부부)+친인척	2(1.8)
	75세 이상	17(16.0)	동거가족수	1명	21(19.8)
	M(SD)	70.0세(4.79)		2명	58(54.7)
	은퇴전 직업	주부		56(52.8)	3명
자영업		14(13.3)		4명 이상	6(6.7)
사무직		10(9.4)	M(SD)	2.2명(.90)	
농어업		9(8.5)	월평균 생활비	50만원 미만	62(59.0)
기능직		8(7.6)		50~100만원 미만	32(30.5)
행정관리직		7(6.6)		100만원 이상	11(10.5)
학력	기타	2(1.8)	M(SD)	619,500원(38.17)	
	국졸 이하	80(75.5)	건강상태	아주 나쁘다	11(10.4)
				조금 나쁘다	40(37.7)
				보통	11(10.4)
양호하다	39(36.8)				
중졸~고졸	19(17.9)	아주 양호하다	5(4.7)		
대졸 이상	7(6.6)	M(SD)	2.88점(1.16)		

* missing value로 각 항목의 합계에 차이가 있음.

관련 일반사항(7문항), 주거공간 사용과 관련된 의식에 관한 사항(5문항), 각 공간별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8문항), 고령자의 일상생활행위에 관한 사항(16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주거내 일상생활행위의 수행정도와 각 공간별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일상생활행위의 수행정도를 묻는 항목은 의생활 행위(4문항, Cronbach α = .6493), 식생활 행위(4문항, Cronbach α = .7640), 주생활 행위(5문항, Cronbach α = .7767)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조사한 설문지 110부 중 부실 기재된 4부를 제외한 106부를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N), 백분율(%), 평균(M), 표준편차(SD), t-test 분석을 하였으며, 각 공간별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공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8개의 주거환경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하고 각 집단간의 차이검증은 Scheffé test를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행위 항목은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IV. 결과 및 논의

1. 주거관련 일반사항

<표 2> 주거관련 일반사항

			N=106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거주년수	10년 미만	34(32.1)	주 택 규 모	40평 미만	31(30.1)
	10~20년 미만	44(41.5)		40~50평 미만	41(39.8)
	20~30년 미만	22(20.7)		50~60평 미만	14(13.6)
	30년 이상	6(5.7)		60평 이상	17(16.5)
	M(SD)	16.1년(9.14)		M(SD)	49.2평(17.23)
주택형태 및 사용	단층주택	66(62.3)	건 평	20평 미만	26(25.7)
	2층주택(1층사용)	22(20.8)		20~30평 미만	36(35.7)
	2층주택(2층사용)	12(11.3)		30~40평 미만	25(24.7)
	2층주택(모두사용)	4(3.8)		40평 이상	14(13.9)
	기타(3층주택)	2(1.9)		M(SD)	29.3평(14.13)
방의 수	2개 미만	28(26.4)	방 사 용 시 동 거 인	배우자와 함께	70(66.0)
	3~4개	55(51.9)		혼자서	34(32.1)
	5개 이상	23(21.7)		기타(손자녀)	2(1.9)
	M(SD)	3.6개(1.50)			

* missing value로 각 항목의 합계에 차이가 있음.

주거관련 일반사항은 <표 2>에 나타내었다. 현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년수는 16.1년이며, 주택규모의 평균은 대지 49.2평, 건평 29.3평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형태는 단층주택이 62.3%로 가장 많았고 2층 주택이 35.9%, 3층 이상이 1.9%로 나타났다. 거주 층수는 1층에 거주가 83.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주거공간내 방의 수는 3~4개가 51.9%로 가장 많았고 평균 방의 수는 3.6개로 나타났다. 방 사용시 동거하는 가족원은 66.0%가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32.1%가 혼자서 사용하고 있었다.

2. 주거공간에 대한 의식 및 만족도

주거공간에 대한 의식 및 만족도를 <표 3>과 <표 4>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고령자들은 주거공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침실(65.4%), 거실(14.4%), 부엌(12.5%), 마당(2.9%)=기타(식당이나 수납공간 2.9%), 욕실/화장실(1.9%)의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고령자들이 주거공간 중 개인실인 침실의 사용이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침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에 대한 만

족도와 사용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의 Likert 척도로 조사한 결과, 면적에 대해서는 평균 3.14점으로 보통을 약간 넘는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 주택의 면적 평균이 29.3평으로 전국 평균 19.1평(통계청, 2002)보다 넓으므로 보통 수준을 넘는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주거공간 사용시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 만족도가 2.82점으로 면적에 대한 만족도보다 조금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면적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주거공간 사용은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이주희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고령자의 대부분(76.4%)이 이주를 원하지 않았다. 만약 이주한다면 희망하는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36.0%, 저층 아파트 32.0%, 고층 아파트 24.0%, 실버 홈과 전원주택이 각각 4.0%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층의 경우 자신이 고령자가 되었을 때 부부가 동거하며 건강할 때에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나 그 외에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어서 고령자계획주거로 집합주택형태의 수용가능성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오찬옥, 1992)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미래의 노년층(중년층)이 고령자 주거로 집합주택 유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의 고령자들도 만약 주거환경을 바꾼다면 집합주택유형을 선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자들은 현재의 주거환경을 변화시키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계획된 고령자 주택의 <표 3> 주거공간에 대한 의식

선택은 중년층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주거공간이라 할 수 있는 침실, 거실, 부엌, 욕실, 화장실에 따른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살펴본다<표 4>.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p<.001$), 실의 크기($p<.01$), 마감재($p<.01$), 조명의 밝기($p<.01$), 환기상태($p<.001$), 난방상태($p<.001$), 문의 사용상태($p<.05$), 창의 크기($p<.01$)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실의 크기를 비롯한 다른 항목에서도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침실은 모든 항목에서 만족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거실이 만족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거실에서는 난방상태와 문의 사용상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 정도가 낮았다. 즉 전체적으로 침실과 거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고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난방상태는 평균 2.10점으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고령자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화장실은 매우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안옥희 외, 2002) 만족도가 낮으며, 거실과 화장실의 온도차가 큰 것이 고령자의 뇌졸중 사망률과 관계가 있다(일본건축학회, 1998)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장실의 온열환경이 매우 중요함

N=106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가장 중요한 공간	침실	68(65.4)	이주희망유무	유	25(23.6)
	거실/마루	15(14.4)		무	81(76.4)
	부엌	13(12.5)	이주시 희망주거	단독주택	9(36.0)
	마당/욕외공간	3(2.9)		저층 아파트	8(32.0)
	욕실	2(1.9)		고층 아파트	6(24.0)
	기타(식당/다용도실)	3(2.9)		실버 홈	1(4.0)
면적만족도	매우 불만족	6(5.7)	사용만족도	매우 불만족	14(13.2)
	조금 불만족	29(27.4)		조금 불만족	35(33.0)
	보통	22(20.8)		보통	16(15.1)
	조금 만족	42(29.6)		조금 만족	38(35.8)
	매우 만족	7(6.6)		매우 만족	3(2.8)
	M(SD)	3.14점(1.07)		M(SD)	2.82점(1.14)

* missing value로 각 항목의 합계에 차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난방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므로 앞으로 고령자 주택 계획시에는 화장실 공간에 대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3. 일상생활행위의 수행정도

일상생활행위의 수행정도를 <표 5>에 나타내었다. 주거공간 내에서 행해지는 16가지 일상생활행위를 의생활 행위, 식생활 행위, 주생활 행위로 분류하여 수행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는데 점수가 높을

수록 그 행위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결과, 의생활 행위는 평균 2.47점, 식생활 행위는 평균 2.39점, 주생활 행위는 평균 3.15점으로 나타나는· 식· 주생활 가운데 주생활 행위가 다른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자가에서 주체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고령자이므로 특별한 생활행위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도 전국 노인의 68.1%가 모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표 4> 각 공간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실종류	변인	전반적인 만족도			실의 크기		
		M(SD)	F값	S-test	M(SD)	F값	S-test
침실		3.36(.95)	10.503***	a	3.15(1.08)	4.073**	a
거실		3.37(1.03)		a	3.11(1.22)		a
부엌		3.17(1.01)		a	2.75(1.14)		
욕실		3.03(.98)		a	2.80(1.15)		
화장실		2.28(1.04)		b	2.48(1.18)		b
실종류	변인	마감재			조명의 밝기		
		M(SD)	F값	S-test	M(SD)	F값	S-test
침실		3.40(.95)	3.689**	a	3.62(.93)	4.098**	a
거실		3.46(1.11)		a	3.73(.91)		a
부엌		3.18(1.00)		a	3.51(1.04)		
욕실		3.11(.87)		a	3.34(.91)		
화장실		2.90(.78)		b	3.13(.89)		b
실종류	변인	환기			난방상태		
		M(SD)	F값	S-test	M(SD)	F값	S-test
침실		3.77(1.09)	10.975***	a	3.49(1.21)	16.262***	a
거실		3.76(1.19)		a	2.90(1.40)		
부엌		3.36(1.19)		a	3.29(1.23)		
욕실		3.42(1.08)		a	2.45(1.09)		
화장실		2.48(1.38)		b	2.10(.96)		b
실종류	변인	문의 사용상태			창의 크기		
		M(SD)	F값	S-test	M(SD)	F값	S-test
침실		3.35(.99)	2.442*	a	3.50(1.01)	4.045**	a
거실		3.19(1.04)		a	3.66(1.06)		a
부엌		3.32(1.04)		a	3.35(1.00)		
욕실		3.33(.95)		a	3.24(1.08)		
화장실		2.83(.98)		b	2.97(.93)		b

* S-test: Scheffé test,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p<.05 **p<.01 ***p<.001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에 나타낸 공간 사용 만족도를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으로 나누어 일상생활행위의 수행 정도를 살펴본 결과, 물건의 수납(p<.01), 음식 조리, 집안청소, 계단 오르기(p<.05)에 대해서 공간 사용에 불만족하는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보다 더욱 수행하기에 어려운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주택 내에서 원활하게 이동하여 공간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불경리나 물건 수납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수납공간의 확보와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 내부 설비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수월하게 음식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조리설비의 배치에도 신중을 기하여야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의 만족 정도와 일상생활행위 수행에 대하여 파악함으로써 고령자 특성을

<표 5> 일상생활행위의 수행정도

행위	변 인	전체	공간사용만족도		t-value
			만족	불만족	
의생활 행위	나는 세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18(.97)	3.03(.89)	3.28(.99)	1.234
	나는 빨래깨키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27(.92)	2.33(.73)	2.21(1.07)	-.585
	나는 다림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52(.88)	2.42(.59)	2.58(1.07)	.877
	나는 착·탈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91(1.08)	1.71(.90)	1.98(1.14)	1.233
	전 체	2.47(.67)			
식생활 행위	나는 음식을 조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63(.99)	2.33(.73)	2.83(1.15)	2.508*
	나는 상차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2.46(1.08)	2.40(.93)	2.50(1.25)	.429
	나는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75(.91)	1.80(.75)	1.77(1.08)	.175
	나는 설거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73(1.04)	2.68(.73)	2.71(1.29)	.152
	전 체	2.39(.77)			
주생활 행위	나는 이부자리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97(1.07)	3.00(.89)	2.98(1.20)	-.092
	나는 집안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57(1.08)	3.25(.90)	3.82(1.11)	2.601*
	나는 물건을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85(1.10)	2.40(.81)	3.10(1.19)	3.290**
	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3.52(1.19)	3.23(1.05)	3.76(1.20)	2.192*
	나는 욕실이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83(1.10)	2.65(.86)	3.08(1.22)	1.947
전 체	3.15(1.23)				

*p<.05 **p<.01

고려한 고령자 주택 계획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14점으로 나타났고 주택의 사용 만족도는 2.82점으로 면적 만족도에 비해 조금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계획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이주 희망 선호에서는 대부분의 고령자가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고령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2. 각 공간별 만족도는 전반적인 사항, 실의 크기, 마감재, 조명의 밝기, 환기 상태, 난방 상태, 문의 사용상태, 창의 크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침실과 거실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화장실 공간이 타 공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 계획시 화장실에 대한 건축 설비적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3. 주거공간 내에서 행해지는 일상생활행위 중 주생활 행위가 평균 3.15점으로 타 행위와 비해 상대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의 하나인 이동성(mobility)의 약화로 사지(四肢)가 불편하고 거동하기가 쉽지 않아 고령자들은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김강태, 1996), 노화가 시작되면서 체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령자 생활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고령자들이 신체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주생활행위의 수행이 용이한 공간계획과 시설의 설비가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 연구로써 고령자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주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고령자의 행동 특성이 공간에 적응된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서 고령자 전용주택으로 계획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투고일 : 2002년 10월 31일

참 고 문 헌

강원필(1989), 노인을 위한 건축환경 설계에 관한 연구 -유료 노인 Home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김강태(1996), 노인을 위한 도시형 주택 계획에 관한 연구,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김경일(1998), 여성고령자의 주거공간 이용행태에 관한 인간공학적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박재간 외(1995),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

상형중 역(1992), **노인과 주거**, 산업도서출판공사.

안옥희·정준현·김순경(2002), **개정 주거인간공학**, 기문당.

오찬욱(1992),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해 본 노인주거 모델 -수도권 거주 중산층 주부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장은정(1990),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전명숙(1994),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환경**,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2), **2000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日本建築學會編(1998), **高齢者のための建築環境**, 日本建築學會.